

유산 보존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의 주요 발전:
2003년 무형유산협약
A Major Advance towards a Holistic Approach
to Heritage Conservation :
the 2003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무니르 부체나키(Mounir Bouchenaki)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사무총장 (전 유네스코 문화 사무차장)

유산 보존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의 주요 발전: 2003년 무형유산협약

● 무니르 부체나키(Mounir Bouchenaki)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ICROM), 사무총장 (전 유네스코 문화 사무차장)

전 세계 190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2003년 10월에 열린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의 유산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그리고 유산의 보호 및 보존 조치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이 1972년에 채택된 지 불과 20년 만에 유산 분석을 국제적 규모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제유산단체의 일부 활동가들은 이를 사상의 극단적인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도 하고, 일부는 문화적 균형이 회복되었다고 해석하거나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의 급변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1946년 유네스코의 설립과 함께 태어난 문화적 보편성이라는 사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난 50년 간 문화유산의 개념은 크게 확장되어 왔다.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의 경우,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문화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베니스 헌장(The Venice Charter, 1964)의 경우는 사실상 그 범위가 이보다 더 협소해서 유물과 유적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유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범위는 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을 통해 여러 건축물과 토속 건축, 산업 혁명이 그리고 20세기 건축 유산 등을 포함하도록 빠르게 확장되었다. 역사적 정원(historic garden) 연구 및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문화적 조경"의 개념을 통해 문화와 자연에 대한 해석이 집중 조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과 사회 과학의 과정에 대한 재조명은, 비록 그 목적에 손상을 주기는 하였으나 유산의 재정의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르면 유산은 물리적 유산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독립적인 표현들로 구성된 실체였다.

오늘날 유산은 기술(記述) 표준을 고수하여 정의된다기보다는 표현의

다원성에 의해 정의된다. 유산을 정의하는 과정은 명백히 유산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문화적 다원성을 단순화된 시각적 재현으로 표현하던 시기에는 유산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거주지와 조각, 유럽의 기념물, 남미의 잃어버린 피라미드, 북미의 국립공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인류 유산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혹은 통합된 무형적 가치라는 개념의 매개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다.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 온 것은 다른 어떤 문화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탐구였다.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그 중요성이 높아져 왔으며, 무형유산이 나타나고 표현된 신화 등의 신념 체계와 사회적 관습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그것을 정체성과 창의성, 다원성의 근원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현재 무형 및 유형유산 모두에 적용되는) 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유네스코의 법적 활동은 대부분 유형유산의 보호에 그 초점을 맞추어왔다. 1973년 볼리비아가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할 당시 처음으로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사실상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볼리비아의 제안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무형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문화유산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1982년이 되자 유네스코는 '민속 보호 전문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Safeguarding of Folklore)'를 설립하고 '비물리적 유산 특별 분과(Section for the Non-Physical Heritage)'를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1989년에 채택된 전통 문화 및 민간 전승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권고안은 '전통 문화 및 민속'의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례를 남겼으며, 또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 전통 문화 및 민속의 규명, 보존, 보급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공리하였다.

1989년 이래 몇몇 지역에서는 이 권고안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1999년 6월 유네스코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이 공동으로 주최한 워싱턴 국제 컨퍼런스(Washingt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용어 문제와 주제의 범위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또한 학자보다는 전통계승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이야기나 노래 등과 같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작품을 탄생시킨 지식과 가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 수용되고 인정되는 상호작용의 방식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유네스코 프로그램 중 90년대에 높아져 가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보여준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93년에 시작된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1998년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선언(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었다. 2001년 5월,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의 체제 내에서 19가지 형태의 문화적 공간 또는 표현을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으로 선언했으며, 이후 2003년 11월에 28가지 '결작'이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2005년에는 또다시 43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선언들은 서로 다른 회원국들이 어떤 유형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네스코의 의뢰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새로운 규범 채택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된 후, 유네스코 총회는 새로운 국제 협약이 가장 적절한 보호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1999년에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협약의 최종안은 2003년 10월 32회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되어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은, 30개국이 이를 채택한 지 세 달 만인 2006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7년 4월 말까지 총 77개국이 동참했다.

이러한 확실한 성공은 유산 보호에 있어 규범의 시행과 더불어 운영 활동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 접근법이 회원국 사이에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적 규모로 수행되는 작업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제 규범 조치를 통해 인정받은 새로운 개념과 의견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과 2003년 사이 무형유산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따라서 매우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대표 집단을 통해 큰 혜택을 얻었으며, 이는 1964년 베니스 헌장과 같은 기존의 법안들을 작성한 전문가 회의의 협소한 지리적, 문화적 구성과 비교된다.

이 새로운 협약의 성공은 또한 모든 문화에 있어서 유형과 무형유산의 긴밀한 연결성이 오늘날에는 널리 인정 받고 있다는 사실로도 설명된다. 문화유산은 사회(즉, 사람들을 연결하는 상호작용 시스템), 그리고 규범과 가치(즉, 상대적 중요성을 정의하는 사상과 신념 체계) 등이 동조된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 문화재는 기저에 있는 규범과 가치의 유형적 증거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유형과 무형유산 사이의 공생 관계를 정립해준다.

무형유산은, 유형유산이 형태와 의미를 취하는 보다 넓은 틀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2002년 9월 이스탄불에서 당시 고이치로 마츠우라(Mr. 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열린 문화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은 '유형 및 무형유산 사이의 역동적인 연계 및 깊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을 전파시킬 하나의 포괄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레비 스트라우스(Claude Levi Strauss)가 52년 전 창안한 이 기저 사상은 인류를 구성하는 주요 그룹들이 우리 공통의 유산에 특정한 기여를 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유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여, '다원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호하는 사상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가 더 크고 평등하게 표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아태지역 회의에서 채택된 상하이 헌장(Shanghai Charter)은 '동산 및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부문 간 체류적 접근 방식의 구축과 '박물관 및 유산에 대한 전체론적 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문서 도구 및 표준'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형 및 무형유산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기념물과 역사적인 도시, 풍경, 예술품, 수집품 등의 유형 문화유산은 범주화하기가 쉽고, 또한 그 보호는 주로 보존 및 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무형유산은 궁극적으로 절차와 실행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와는 다른 보호 접근 방법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그 성격상 훼손되기 쉬우며, 그 생존과 전승은 무형 전통의 표현 내에 있는 '수행자', 그리고 사회 및 환경적 요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유산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따라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는 수집, 문서화, 문서 보관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승자의 보호 및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유형 문화유산은 그 제작자나 위임자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설계된 반면, 무형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구전되기 때문에 그 운명은 작가와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특정한 지식 체계, 가치, 그리고 그것이 창조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유산(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유형의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쓰이던 전통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들은 대부분 적합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기념물, 도시, 풍경 등의 보존을 위한 요구사항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관습과 전통 지식의 보호 및 전승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i) 유형유산을 보다 넓은 범위의 문맥에 포함시키고, (ii) 무형유산을 "물질화"하며, (iii) 무형유산의 수행자와 지식 및 기술의 전승을 지원하는, 삼중의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유산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란, 유형유산, 특히 종교적 기념물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경우 이를 더 넓은 문맥상에서 바라보고, 또한 관련된 정신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잘 고려하기 위해 그것을 관련된 지역사회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유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전 형태의 유산을 기록보관소든, 창고든, 박물관, 시청각 및 영화 기록이든 간에 물질화된 표시의 형태로 담을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작업이 무형유산을 '동결'시키고 문서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작업이 단지 무형유산 보호의 일면일 뿐이며, 이 작업을 위해 선택된 가장 적합한 방법과 재료의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무형유산 수행자, 그리고 기술 및 지식의 전승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는 바로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어 현재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된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즉 특정 전통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대가(大家)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다. 1993년 유네스코는 전통계승자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유사한 인간문화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술가, 장인, 기타 '살아있는 도서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의 기술과 기법이 전승되도록 보다 나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유산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을 도입하기 위해 수행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통해 얻어졌다. 비록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매우 다르더라도, 이들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둘은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인류의 내재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서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인 역할을 한다. 